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상철 회장 |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IEMA Korea)는 2014년 12월 설립, 구명 구급을 비롯해 방재·안전에 관한 교육 등 국내 응급 체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및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International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 IEMA)는 1985년 설립되어 일본에 본부를 두고 한국과 호주의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명구급법 보급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미국 심장협회(AHA)로부터 유일하게 국제트레이닝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로 승인을 받아 구명구급·방재·안전에 대한 교육



및 보급,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이하 'IEMA Korea')는 2014년 12월 27일 창립하였으며, 2016년 미국심장협회(AHA) BLS Training Center Faculty로 승인을 받아서 미국심장협회(AHA) Heartsaver과정과 Healthcare Provider과정 및 BLS Instructor과정 그리고 국제구명구급협회(IEMA) Basic과정과 Advanced과정 및 BLS Instructor과정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EMA Korea는 그동안 지자체와 연계하여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 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법, 어르신 대상 심혈관계 관리 및 건강관리법,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차 없는 거리' 봉사활동, '2019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안전지원활동 등 다수의 행사에서 안전 지원활동 및 구명구급법 보급활동, 각 지역의 자율방재단 및 자율방법대, 시민경찰 등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경비지도사 및 특수경비원 응급처치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IEMA Korea는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명구급법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보급을 위한 활동', '재난안전 및 방재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재난안전·방재, 구명구급에 관한 자격개발과 운영 및 교육에 관한 활동', '사회 안





전을 위한 공익사업 및 유관 단체와의 연계 활동', '국·내외 각종 안전단체 및 구명구급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강사(Instructor) 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구명 구급활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탐정협회(KAPI) 상임회장과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탐정' 슬로건으로 국내 탐정제도 도입 및 탐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2월 25일 창립을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선진국에서는 제도화가 되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이 많지만, 국내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탐정업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탐정문화의 발전을 영구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는 1996년 설립 국내외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경호·경비·보안(정보 및 물리적)·탐정(민간조사)·테러리즘 및 보안검색, 시큐리티 컨설팅(Security Consulting), 손실예방(Risk Prevention) 등 Private Security의 연구와 국/내외 교류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며,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큐리티 분야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민간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여를 계획으로 '민간정보분석사' 민간자격을 등록하여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명 구급활동과 관련 현주소와 아울러 정부 당국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면 학생 중 응급처치 순서와 심폐소생술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이 1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보완점'을 살펴보면 자동제세동기(AED) 실습 확대 93.8%, 심폐소생술(CPR) 실습 확대 90.1%, 강사의 전문성 18.4%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이나 어린이안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기준에 미국심장협회(AHA)와 적십자에서 배출된 BLS 강사

들을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사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심장협회와 적십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내용입니다. 늘 현장에서 교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시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습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강사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안전(Security & Safety)은 기본이며, 안전에서는 구명구급법(응급처치)이 기본이고, 구명구급법 중에서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이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심장발작으로 쓰러지는 환자가 연간 약 3만여 명이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심혈관계 질환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심장발작으로 쓰러지는 환자가 있는 경우 골든타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소생시킬 수 있도록 구명구급법 보급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부분도 활성화하며, 1,000만 넘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Pet CPR의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에 대한 기대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도의 물질문명이 발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보건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은 상황에서, 현장의 전문가 단체들이 모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보총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도적 시스템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 또는 규제를 살피고 확인하여 개선해 나아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조성에 한보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IEMA Korea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세계**

〈취재·정리: 김진철 기자 / aw19999@naver.com〉

〈취재·사진: 김정호 본부장 / k42361@daum.net〉